

### 용주사 주지 정선구도 가나 운영위 성관·월암문도 성월 지지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차기 주지 선출이 단일화가 아닌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월암문도회는 7월 14일 모임을 갖고 용주사 차기 주지 후보로 성월 스님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문도회 일원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주사 운영위원회는 7월 15일 회의를 열고 차기 주지후보로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을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했으며 9명의 운영위원들이 차기 주지후보로 성관 스님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용주사 차기 주지 후보는 성관 스님과 성월 스님의 경선 구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용주사는 그동안 전각문도회의 규약에 따라 투표 없이 주지 후보를 추천해 왔다는 점에서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주사 차기 주지 후보를 결정하는 산중총회는 오는 8월 20일 열린다. 신성민 기자

### 백진순 교수 임용 탈락 소청심사위 부당 결정

지난 2월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에서 결정된 백진순 前불교학술원 조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의 심사결과가 나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성삼재)는 최근 “동국대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백 前조교수는 동국대와 2010년 3월부터 2년 기간의 연구전담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불교학술원에서 근무했다.

백 前조교수는 이 기간 동안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ABC사업)’ 기록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심밀경소’ 3권의 번역을 완료했다.

하지만 불교학술원장 현각 스님은 ‘국내저명 학술지 게재논문을 연간 1편 이상 발표’, ‘불교한문 문헌 번역과 증의 연간 100단 이상 시행’ 등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재임용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동국대 이사회는 번역 기준을 완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재임용을 거부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번 결정문에서 동국대의 재임용 거부처분에서 ‘불교한문문헌 번역과 증의 연간 100단’의 번역 대신 ‘해심밀경소’ 3권을 번역한 것을 인정했다. 노덕현 기자

# 기업 연수, 템플스테이로 하세요

## 문화사업단, 감정 노동자 ‘기통산장’ 프로그램 매뉴얼 내보

세심·휴식선 등 명상 통해 직장인 스트레스 치유 담아 자율형 매뉴얼도 함께 공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최근 선보인 기업연수 템플스테이 매뉴얼 2종

현대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신·감정 노동자에 해당된다. 매일 두뇌노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살아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 노동의 생김 부조화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정신 질환과 심할 경우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어 최근에는 이 같은 감정노동자들의 심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정신·감정노동자들에 대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 공개했다. 또한 기업 연수에 활용도가 높은 자율형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였다.

정신 및 감정노동자를 위한 기업연수용 템플스테이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산사에서 펼쳐지는 기퍼기 법석-기통산장(氣通山場)’이다. 정신 및 감정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및 여러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개발해 소통과 업무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초의차명상원 지장 스님이 연구한 ‘기통산장’은 크게 휴식, 치유, 긍정의 마음 개발, 삶의 의미 찾기 등 4가지 주제를 토대로 자연환경과 명상수행, 전통문화 활용해 8가지 수행프로그램으로 단계화했다.

숲속의 청량한 기운을 통해 심신을 정화하는 세심선,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명상 휴식선, 과거와 현재 미래 자신에 대한 의미를 찾는 회심선, 자애명상을 통한 자기 존중감을 강화하는 자비선, 차와 명상을 활용해 심신 이완 및 행복을 체험하는 다향선, 긍정상상명상 활심선, 통찰을 통해 생각을 전환하는 반야선, 생활 속의 명상실습 및 의미 실현의 방법을 알아가는 차담선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은 “‘기통산장’은 청정한 산사의 자연환경 속에서 오감을 통해 휴식과 충전을 체험하고 전통문화와 불교수행의 원리가 접목된 실용적 방법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심신 건강 회복, 자존감 및 삶의 질 향상, 직무 만족도를 높이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발한 자율형 템플스테이 휴식이라는 참가자의 요구와 ‘행복의 씨앗을 찾아 가꾸자’는 템플스테이 브랜드 철학을 반영시킨 것이다.

자율형은 아성여당의 기본 테마인 위로, 건강, 비움, 꿈을 기반으로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참가자 이완 프로그램, 지도법사 스님이 진행하는 충전 프로그램의 유기적 운영을 권장한다. 대표 사례 템플스테이로 반야사, 도갑사, 수덕사, 법륜사 등을 소개해 일반 사찰에서도 응용할 수 있게 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자율형 템플스테이 매뉴얼은 자율형에서도 사찰 개성을 살린 차별화된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됐다”면서 “이를 통해 참가자와의 관계 형성에 무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종헌 개정안 다룰 임시 중앙총회 열린다

## 조계종 8월 12일... “15대 총회 원만회향” 참석 당부

8월 5일까지 총회 의안 접수 “절차상 하자 송구” 사과도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재차 다룰 제199회 중앙총회 임시회가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항적)는 7월 19일 공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앙총회는 공고문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19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종헌개정안’ 이 제46차 원로회의에서 부결돼 개최되게 됐다”면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발의된 중요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 제15대 중앙총회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종도들에 대한 의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모든 의원 스님들께서는 제15대 중앙총회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총회는 7월 14일 총무원 2층 회의실 의장단, 상임보좌위원장, 중진의원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다시 다룰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중앙총회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안을 종헌에 명시된 무기명 비밀투표 조항을 어기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장 항적 스님은 회의 비공개 전 인사말을 통해 “종헌개정안 4건을 제19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원로회의의 부의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려했다”면서 “15대 총회에서 양종의 미를 거두려했으나 절차상 문제 발생했다. 종도들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신성민 기자

# “황우여 의원 교육부 장관 자격 없다”

## 종자연, 황 의원 지명 철회 요구... “학교, 선교무대 전략 우려”

“참담한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황우여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박근혜 정부가 교육부장관에 황우여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에서 7월 16일 “교육현장이 종교차별적 선교의 장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종자연은 황 의원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공사도 구분 못하는 신앙 표현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를 시킬 인물”이라고 평했다.

황 의원은 이미 종교 편향 발언으로 수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황 의원은 2010년 12월에는 법조계 기독교신자들의 모임인 애중회 창립 50주년 축사에서 “현재 대법관 14명중 개신교 신자가 점점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며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종자연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 종교교육은 계속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막을 획기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황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은 교육 현장에서의 종교갈등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교육현장을 종교차별적 선교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강의석 씨가 기독교 미션스쿨의 종교교육 강압에 저항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강씨를 퇴학 처분한 것은 학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학교에서의 강제적 종교교육을 위법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배현진 기자

# “불공공덕 널리 베풀 수 있기를...”

## 진각종, 12일 해탈절 기념불사 거행

진각종은 7월 12일 해탈절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부모님과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해탈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7월 15일 해탈절을 앞두고 열린 기념불사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주석처인 탑주심인당에서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하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보름날을 우란분재를 베풀기를 권하였다”면서 “진각종은 양력 7월 15일을 해탈절로 삼고 선망부모와 고혼들의 왕생을 기원함은 물론 은혜에 보답하기를 서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정 정사는 이어 “진언행자는 크게 온 인류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

가도록 서원하고, 작게는 내가 살고 있는 국가의 안녕과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안정을 서원해야 한다”면서 “해탈절 기념불사를 맞아 나와 더불어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불공 공덕을 널리 베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각종 8대 명절 중의 하나인 해탈절은 매년 7월 15일 신교도들이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자기수행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보은의 날이다. 특히 각 심인당에서는 원로스승 봉양기관인 기로원을 찾아 공양하고 법랑회를 갖는 등의 보은행사를 열고 있다. 김주열 기자



진각종은 7월 12일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해탈절 기념불사를 가졌다.

### 〈바로 잡습니다〉

7월 10일자 B4면 발췌문 끝 문장 가운데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놓는게 관 어떤 경계든 사랑에 고통받지 말고 남을 믿고 관하십시오”로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놓는 게 관 어떤 경계든 사랑에 고통받지 말고 나를 믿고 관하십시오”로 바로잡습니다.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기기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썩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뎀(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배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